

- 주요 뉴스: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상 최고치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전망 확산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내년 초 연방기금금리를 4% 이상으로 높일 필요
 - 중국 8월 제조업 PMI, 2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 수요 둔화 등이 영향
 - 일본은행 정책위원, 저조한 경기회복을 경고. 장기간 저금리 지속을 지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부진한 경제지표,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8%],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이 투자심리를 저해
유로 Stoxx600지수는 역내 고물가 및 에너지 관련 불안 등으로 1.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차익매물 출회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0.4%,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되며 2개월래 최고 수준
독일은 ECB의 큰 폭의 금리인상 예상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41.9원, +4.3원) 0.4% 상승, 한국 CDS 하락

		8/31일	8/30일	전일대비			8/31일	8/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55.0	3,986.2	-0.78%	국채 금리 10y	미국	3.19%	3.10%	9bp
	유럽	415.12	419.81	-1.12%		독일	1.54%	1.51%	3bp
	중국	3,202.1	3,227.2	-0.78%	CDS 5y	한국	32bp	35bp	-3bp
	일본	28,092	28,196	-0.37%		중국	74bp	74bp	0bp
	한국	2,472.1	2,450.9	0.86%	위험 지표	EMBI+	-	428	-
환율	달러지수	108.70	108.77	-0.06%		VIX	25.87	26.21	-1.30%
	유로화	1.0054	1.0015	0.39%		WTI유	89.55	91.64	-2.28%
	엔화	138.96	138.79	-0.12%	원자재	구리	351.9	354.5	-0.75%
	위안화	6.8904	6.9114	0.30%		금	1,711.0	1,724.0	-0.75%
	원화	1,337.6	1,346.7	0.6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상 최고치.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전망 확산

- 해당 상승률은 9.1%(연간)를 기록하며 전월(8.9%) 및 예상치(9.0%) 상회.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5.5%로 전월(5.1%) 대비 높은 수준. 이번 결과는 식품(10.6%) 및 에너지(38.3%) 가격의 상승 등에 기인
-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로 일련의 큰 폭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 Commerzbank의 Christoph Weil은 9월에도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정책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
- 이날 독일 중앙은행의 나겔 총재는 인플레이션 제어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 또한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
- 핀란드 중앙은행의 렌 총재도 ECB가 다음 주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발언. 아울러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향후 통화정책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
- 한편 골드만삭스는 ECB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추정. 역내 고물가 등으로 ECB의 통화긴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 예금금리(현재 0%)는 내년 2월 1.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내년 초 연방기금금리를 4% 이상으로 높일 필요

-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내년에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피력. 또한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물가안정 과정에서 고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

■ 미국 8월 ADP 민간고용, 전월비 증가세 둔화.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

- 해당 고용의 증가 건수는 27만건으로 전월(13.2만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 이에 이번 주 발표 예정인 8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건수 역시 전월비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로이터 전망에서도 8월 신규 고용은 30만건으로 전월(52.8만건) 대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

■ Morgan Stanley, S&P500 지수는 현 수준에서 15% 하락할 가능성

- Mike Wilson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통화긴축으로 약한 수준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S&P500 지수 역시 6월 저점(3667)보다 낮은 3400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 또한 최근 기업실적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

■ 중국 8월 제조업 PMI, 2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 수요 둔화 등이 영향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49.4를 기록하여 전월(49.0) 대비 부진. 이번 결과는 러우 전쟁과 고물가에 따른 대내외 수요 둔화, 가뭄과 폭염의 영향 등에 기인. Capital Economics는 이번 결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
- 한편 서비스 PMI는 52.6으로 확장의 기준인 50을 상회했으나 전월(53.8) 대비 하락.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동 제약 등이 서비스 활동을 저해

■ 일본은행 정책위원, 저조한 경기회복을 경고. 장기 저금리 지속을 시사

- 준코 나카가와 위원은 생활비 증가에 따른 가계지출 둔화 등이 예상되며, 이에 당분간 저금리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 장기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임금인상 등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하다고 강조

■ 러시아, 예정대로 노드스트림을 통한 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 재개 여부는 불확실

- 예고한 대로 8/31일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유지보수를 위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 다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3일 후에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약속의 이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시카고 PMI: 52.2, 7월(52.1), 예상치(52.0)
- 독일 8월 실업률: 5.5%, 7월(5.4%), 예상치(5.5%)

■ 주요 경제 이벤트(9/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8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7월 건설지출
- 유로존 8월 S&P Global 제조업 PMI(수정치),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양적긴축, 역레포 잔고 고려 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블룸버그

(The Fed Is About to Go Full Throttle on QT. Fear Not)

- 9월부터 양적긴축 규모가 확대(월간 475억달러→950억달러). 이에 일부에서는 팬데믹 이후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위험자산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양적긴축 본격화로 유동성 감소가 심화되면 이전과는 반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
- 하지만 이미 팬데믹 이후 재무부예치현금(TGA), 역레포를 통해 상당량의 유동성이 흡수. 역레포 잔고에 축적된 유동성 규모는 2.18조달러로, 필요할 경우 이를 다시 유동성 공급에 활용하여 양적긴축의 영향 상쇄 가능. 다만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은 주의가 요구

■ 글로벌 에너지 충격, 과도한 에너지 자립보다 공급 다변화가 효과적 대안 - Financial Times

(National self-sufficiency isn't the answer to the energy shock)

- 최근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다수의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을 추진. 그러나 송유관 건설 혹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 등의 대책은 막대한 비용 유발. 또한 높은 경로의존성 등으로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소극적.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LNG터미널 건설,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
- 다만 국내에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노력은 지양할 필요. 이로 인해 에너지 수입을 위한 여건이 취약해지면, 자국 내 공급이 어려울 때 외국산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 또한 단일 에너지원에 과다한 의존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

■ 미국 달러화 강세,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등으로 지속될 전망 - Financial Times

(‘King dollar’ surges as Fed presses ahead with rate rises)

■ 중국 경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미흡한 부동산 경기 침체 대응으로 하방 압력 지속 - WSJ

(There Is Still No Bottom for China's Economy)

■ 대규모 유럽 채권 매도, ECB·영란은행의 금리인상 전망에 기인 - Financial Times

(European debt market hit by historic sell-off after rate rise bet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